

민주 광주·전남 13곳 경선 확정...이개호 의원 단수공천

여수갑 순천 광양·곡성·구례 3곳은 공천심사 진행

광주 2곳 서구갑 서구을에선 경선 후보자 추가 공모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광주와 전남 지역구 18곳 중 13곳의 후보를 확정하며 경선 레이스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공관위는 19일 광주·전남지역 경선 선거구 5곳과 단수 공천지역 1곳을 추가 결정해 발표했다. 경선에 포함된 곳은 광주 동남갑(윤영덕·최영호), 광산갑(이석형·이용빈), 광산을(민형배·박시종),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김승남·한명진), 영암·무안·신안(백재욱·서삼석) 등이다.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현 이개호 의원이 단수 공천돼 경선 없이 본선에 직행한다.

이날까지 경선 후보가 확정된 지역은 광주 8곳 가운데 6곳, 전남 10곳 가운데 7곳이다. 광주 서구갑과 서구을은 후보자를 추가 공모 중이며, 전남 여수갑, 순천, 광양·곡성·구례 등 3곳은 공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또 당내 현역 지역구 의원 중에서는 단수공천을 받은 이 의원과 함께 서삼석, 손금주(나주·화순) 의원의 경선 참여가 확정됐다.

광주에서 유일한 민주당 현역인 송갑석(서구갑) 의원은 현재까지 단수 신청 지역으로 추가 후보자를 모집 중이다.

관심을 끈 전략 공천 여부와 영입 인재 배치는 광주·전남의 경우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텃밭 탈환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이 낙하산 공천이라는 역풍을 우려해 고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선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전략 공천 가능성이 점쳐진 광주 북구갑(정준호·조오섭), 동구·남구갑(김해경·이병훈)은 일찌감치 경선 지역으로 결정됐으며, 목포 역시 김원아-우기중 예비후보간 경선을 실시한다.

앞서 1차 발표 때 광주 동구·남구를 북구갑과 함께 북구를(이형석·전진숙)과 전남 해남·완도·진도(윤광국·윤재갑) 등 4곳이 경선지역으로 확정됐으며, 2차에서는 전남 나주·화순(김병원·손금주·신정훈), 목포, 여수(김희재·정기명) 등 3곳이 확정됐다.

현재까지 발표된 경선 지역으로만 보면 민주당이 천명한 전략공천 최소화와 2인 경선 원칙이 대체로 지켜졌다는 분석이다. 광주는 현재까지 모든 지역구가, 전남은 담양·함평·영광·장성, 나주·화순을 제외하고는 모두 2명이 경선하게 됐다. 따라서 아직 발표되지 않은 지역구에서도 2인 경선 원칙이 지켜진다면 추가 컷오프(공천 배제) 후보자가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은 전략공천이 없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선거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4일 도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어르신·장애인 등 관련 단체 담당자들과 업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도선관위 직원들이 진도 리조트 입구에서 투표참여를 홍보하는 모습. /전남도선관위 제공

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전체 18곳 가운데 5곳(광주 2, 전남 3)은 여전히 경선 후보가 발표되지 않아 영입 인재를 후보로 단수 지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순천은 선거구 조정으로 분구될 가능성이 있어 전략공천 가능성이 매우 높

다. 현재까지 단수 신청 지역인 광주 서구갑도 영입 인재를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공관위 관계자는 "공천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최대한 원칙에 따라 심사하고 경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전략공천과 영입인재 배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고 귀띔했다.

한편 민주당은 빠른편 오는 27일부터 권리당원 투표(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50%)를 실시하는 경선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경석 기자

전국 지자체 공무원 3만2천42명 신규 채용

사회복지직 2만5천651명

광주 783 · 전남 2천410명

올해 사회복지직 2천632명과 소방직 4천771명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 공무원 3만2천42명을 선발한다.

주로 소방과 사회복지, 생활안전 등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현장 중심의 신규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에 따른 육아휴직 등의 증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 2020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총원계획에 따라 총 3만2천42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규채용 인원 3만3천60명보다 소

폭(3.1%) 감소한 것이다.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규모는 2017년 2만3천에서 2018년 2만5천692명으로, 2019년에는 무려 3만3천60명으로 대폭 늘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2만5천651명이며 특정직 4천776명, 임기제 1천546명, 별정직 27명, 전문경력관 42명 등이다. 일반직 가운데 7급은 749명이며, 8·9급 2만4천232명, 연구·지도직 670명 등이고 특정직은 소방직 4천771명과 지치경찰 5명이다.

직렬별로 보면 소방 현장 인력 충원을 위한 소방직이 4천771명이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에 필요한 사회복지직 2천632명, 방문간호·치매안심센터 등을 위한 보건·간호직 1천574명 등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천136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3천292명, 경북 2천828명, 전남 2천410명, 경남 2천403명, 충남 2천58

명 순이다.

올해 783명을 선발하는 광주는 일반직 7급 23명, 8·9급 633명, 연구·지도직 22명, 특정직(소방·지치경찰) 105명이다. 전남은 7급 78명, 8·9급 1천708명, 연구·지도직 65명, 특정직 530명, 임기제 별정직 등 기타 29명이다.

올해 신규채용 공무원 가운데 83.3%에 해당하는 2만6천686명은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나머지 16.7%인 5천356명은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뽑는다. 경력경쟁임용은 공채로 총원이 곤란한 경우 경력·자격·종·학위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다.

또한 사회통합과 공직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과 저소득층, 고졸 예정자 등의 채용 인원을 확대했다. 장애인 7·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고용비율(3.4%)보다 높은 5.6%(1천399명)를, 저소득층 구분 모집은 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고용비율(2%)보다 높은 812명(3.8%)을 선발한다.

세종=김민수 기자

“전남 녹색축산육성기금 신청하세요”

전남도는 19일 환경친화형 축산사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대상 56호를 확정, 236억원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녹색축산육성기금은 친환경 축산 실천 농가,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오는 4월 25일 시행될 식용란 선별 포장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산란계 농가, 소규모 축산농가 등을 우선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계란 선별 포장시설 설치, 축사 신규설치,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등 시설자금 50호 대상 220억원 △원료육 구입, 사육환경개선을 위한 깔짚·미생물 구입 등 운영자금 6호 대상 16억원을 연리 1%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시설자금인 경우 농업인·법인 20억 원, 축산물 유통·가공업 30억

원 이내이며, 운영자금인 경우 농업인·법인 2억 원, 축산물 유통·가공업 3억 원 이내다.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이 2년 거치 6년 균분상환이며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2년 거치 5년 상환이던 시설자금 융자 상환 기간을 올해 2년 거치 6년 상환으로 1년 연장해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대출 취급은행으로 방문해서 융자금액 실행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녹색축산농장 지정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 서다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